

정보공개 모니터단 의견 검토 결과

2019년 3월

연번	해당 메뉴	모니터단 의견	담당부서	검토내용	비고
1	<p>열린서울교육-계약공개- 발주계획-G2B-용역 내 '2019 메이커 페어 선진문화체험 국외연수 위탁', 2019. 3. 8.</p>	<p>-메이커 페어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 -국외연수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외연수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간단히 밝혀주길 바람</p>	<p>교육혁신과</p>	<p>○ 메이커 페어: 상상하고, 만들고, 나누자는 비전으로 진행하는 서울형 메이커 교육*의 일환으로 2018년 시작한 '학생 메이커 축제'(서울 학생 메이커 고짜축제)로 올해 2회 사업임. 약 20,0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임. * 서울형 메이커 교육: 학생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하고,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이끄는 과정중심의 미래형 프로젝트 공방교육 ※ 참고: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에 미국을 메이커의 나라라고 선언하고, 백악관에서 메이커 페어(faire) 행사 개최 및 메이커 주관을 선언하며 미국내 메이커교육을 이끔</p> <p>○ 국외연수 - 내용: 선진 메이커 스페이스, 메이커 교육기관,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, 메이커 페어, 메이커 동아리 등 메이커 교육 전반에 대한 견학 및 체험(미국, 대만 메이커 체험) - 필요성: 미국·대만의 메이커 페어 및 메이커 교육, 체험기관 등을 통해 학생, 교원(전문직 포함)의 역량을 강화하고 '2019 학생 메이커 고짜 축제',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및 메이커 모델학교 구축 등 국내 메이커 교육현장에 선도적인 역할, 사례 적용 및 활성화에 필요함.</p>	